

農家所得의 構造分析

—「農家經濟調查」를 中心으로—

鄭 英 一*

<目 次>	
I. 序	2. 農業所得率의 分析
II. 農家의 所得의 地位	3. 農業收入 및 支出의 構造
1. 1954—71年間의 農家經濟推移	IV. 兼業所得의 構造
2. 農家實質所得 및 生活水準의 變動	1. 兼業所得의 水準
3. 農家階層別 所得格差의 進展	2. 兼業所得의 構造分析
III. 農業所得의 構造	V. 結 語
1. 階層別 農業所得의 分布變動	

I. 序

本稿는 1960年代를 통해서 持續되어 온 經濟의 高度成長이 農業部門에 어떠한 影響을 波及했으며 그에 대한 農業側의 對應이 어떻게 展開되고 있는가를 理解하려는 試圖의 一環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1960年代에 이루어져 온 經濟成長이 非農業部門 특히 鑛工業 및 社會間接資本部門을 先導部門으로 進行되어 왔으며 農業部門의 發展이 매우 不振해 왔다는 事實은 再言을 요치 않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工業中心의 高度成長도 農產物에 대한 需要의 變動, 非農業起源農業生產要素의 供給, 農業部門의 勞動力에 대한 非農業部門에의 새로운 就業機會의 創出 등의 면에서 農業部門資源配分의 既存秩序에 새로운 衝擊을 가해 주며, 이에 대한 農業部門의 反應이 勞動力을 비롯한 農業生產要素의 結合方式에 變動을 가져옴으로써 여기에 農業生產力의 維持 發展이라는 次元에서의 새로운 課題가 提起되게 된다.

本稿는 農業經營의 主體單位를 이루는 農家が 生産活動에 參與하여 얻는 所得의 水準과 構成의 變動에 觀察의 焦點을 두고 高度成長 속의 農業의 構造變動을 把握하는 데 그 目的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專任講師

을 두고 있다. 第Ⅱ章에서는 世帯로서의 農家の 所得의 地位의 變動推移를 특히 都市勤勞者家口와의 對比를 통해 考察하는 동시에 農家內部的 階層別 所得格差의 展開을 觀察한다. 第Ⅲ章에서는 農家所得의 主軸인 農業所得의 構造分析이 試圖된다. 먼저 階層別 農業所得格差의 觀察을 통해 脫農化의 進展傾向을 把握하며, 農業所得率과 農業生産要素의 投入 및 農業產出物構造의 變動을 考察함으로써 農業生産의 構造變動의 基本的 性格을 밝힌다. 第Ⅳ章에서는 農家の 兼業進退을 階層別 兼業所得分析을 통해 把握하고 農家兼業化의 性格을 밝힌다.

分析의 基礎로 된 資料는 1962年 以來의 農林部の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이다. 그밖에 必要에 따라 「都市家計調査」, 「農村物價 및 賃料金調査」 등이 採用되었으나 本文 중의 圖表에 관해 資料出處를 記載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農家經濟調查」를 基礎로 筆者가 加工한 것임을 밝혀둔다. 「農家經濟調查」를 分析의 基礎資料로 쓴 것은 前述한 課題의 解明을 위해서는 農家레벨에 있어서의 情報가 緊要한 바, 農家經營의 次元에서의 微視的인 所得分析을 위해서는 比較的 精度가 높고 一致된 方式에 의해 時系列的으로 整備된 資料로서의 同調査의 利用價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만 1962-71年間의 그것은 標本數 1,200餘戶의 것으로서 業態別 農家經濟나 兼業에 대한 調査가 不充分할 수 밖에 있다는 弱點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 弱點은 別個의 調査를 통해 經營形態에 따른 農家經濟狀態의 變動을 把握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可用資料上的 制約으로 本稿의 分析도 특히 兼業面에 있어 不充分한 點이 적지 않게 느껴지나 詳細한 論議는 다음의 機會로 미루고 여기서는 重要한 事實의 指箇에만 그치지 않을 수 없다.

II. 農家の 所得의 地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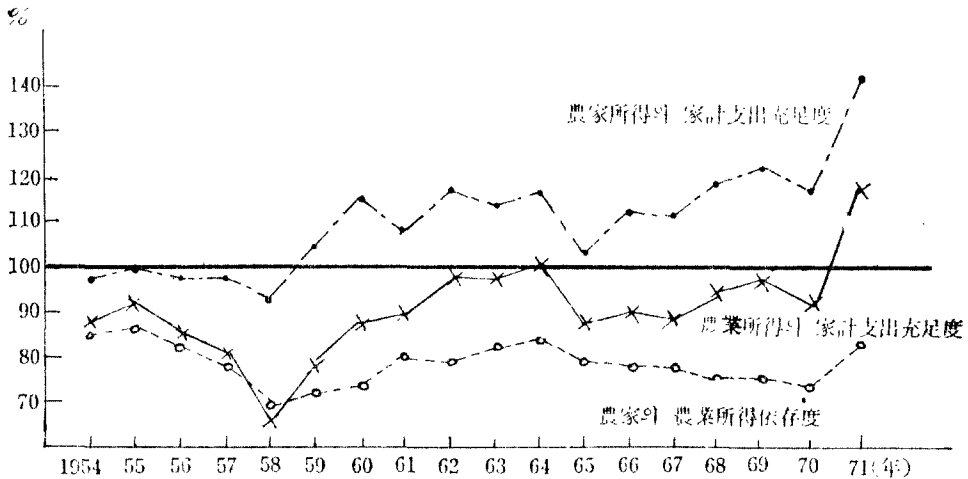
農家の 所得 내지 經濟行動을 觀察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 가지 事實에 留意해 둔 必要가 있다.

첫째, 農家라는 經濟單位는 몇가지의 複合的인 內容을 지닌다는 점이다. 家族勞働을 基幹으로 하는 農家は 農業生産의 基本單位를 이루는 同時에 家計로서의 消費單位의 機能을 겸할 뿐 아니라, 많은 農家は 自營農業 이외에 兼業에 從事함으로써 農外所得을 얻는다. 農家所得은 農業所得과 農外所得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兩者間의 構成은 農家が 保有하는 農業生産要素 및 農外の 就業機會 등에 의해 달라진다.

둘째, 分析의 對象을 世帯單位로 할 것인가 世帯員個個人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分析의 目的에 따라 適切한 分析對象이 選擇되어야 할 性質의 문제이다. 예컨대 農業經營單位의 收支變動이나 農家の 消費水準을 문제로 할 때는 世帯單位觀察이 適切한 것이지만, 産業間의 勞動生産性比較를 위해서는 農業從事者個人을 對象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農家人口의 流出에 있어서도 舉家離農이 있는 反面 單獨離農도 있어 世帯單位 또는 世帯員單位 어느 한쪽의 觀察만으로는 不充分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는 農業經營單位로서의 農家の 所得構造에 焦點을 두고 있으므로 分析의 對象은 주로 世帯單位에 두어진다.

1. 1954-71年間の 農家經濟推移

먼저 農家所得의 水準과 構成의 變動부터 檢討해 보자. 1954年 以來 韓國銀行·農業銀行·農協 및 農林部에 의하여 承繼되면서 行해져 온 「農家經濟調査」에 나타난 戶當平均農家經濟收支의 움직임을 基礎로 하여 主要指標을 縮約해 보인 것이 <第II-1圖>이다. 經常價



<第II-1圖> 農家經濟主要指標의 推移

格表示 戶當平均年間農家所得은 1954年의 15千圓에서 62年의 68千圓, 71年의 356千圓으로, 戶當農業所得은 同期間中 13千圓에서 51千圓, 292千圓으로 增大한 同時에 家計費支出도 14千圓에서 53千圓, 248千圓으로 늘어났다. 이 結果 可處分所得에서 家計費支出을 뺀 農家の 貯蓄餘力(農家經濟剩餘)은 1954年의 僅少한 赤字에서 62年의 10千圓, 71年의 101千圓으로 好轉되었다. 여기서는 우선 戶當平均으로 본 農家所得, 農業所得 및 家

計費支出의 三者間의 關係를 중심으로 家計費에 대한 農家所得 및 農業所得의 比率과 農家の 農業所得依存度를 통해서 1950年代와 60年代를 거치는 동안의 農家經濟變動의 概要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農家所得의 家計支出充足度는 1951年에서 58年에 이르기까지는 可處分所得이 家計費支出에 미치지 못하여 平均的인 農家は 赤字를 면치 못해 왔다. 1959년에 家計收支는 僅少한 幅이나마 黑字로 轉換하였으며, 1962年 以後에 와서 農家收支의 剩餘幅은 所得의 10-20%線에 定着하게 되었다.

한편 農家所得의 主源泉인 農業所得의 家計費充足度는 1964年과 71年을 除外하고는 100%를 下廻하고 있어 平均的인 農家は 農業所得만으로는 家計費支出을 充當할 수 없어 負의 貯蓄에 依存하지 않는 限 多少間의 農外所得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農業所得의 家計費充足度는 1960年 以前의 80% 内外의 水準에서 62年 이후에는 90% 以上으로 높아졌으며 變動幅도 상당히 安定化되고 있어 1950年代의 極甚한 低位와 不安定狀態는 벗어난 것을 보여 준다.

農家所得 中 自營農業所得의 比率은 1954, 55年頃에 85% 内外의 水準이었던 것을 除外하면 대체로 70-80% 間을 움직여 왔으며 1961年 以後로는 80% 内外線에서 머물고 있어 全般的으로 農家經濟는 自營農業을 爲主로 하는 所得構造를 지닌채, 兼業所得은 별로 活潑한 增加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諸指標을 통해서 볼 때 1950年代에 매우 不安定한 狀態에 있었던 農家經濟가 家計收支의 赤字에서 벗어나고 農業所得이 家計費의 90% 以上을 充當하게 된 것은 1961, 2年頃 以後의 일이며, 이들 指標間의 相對的 關係는 그 以後 별로 變動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農家實質所得 및 生活水準의 變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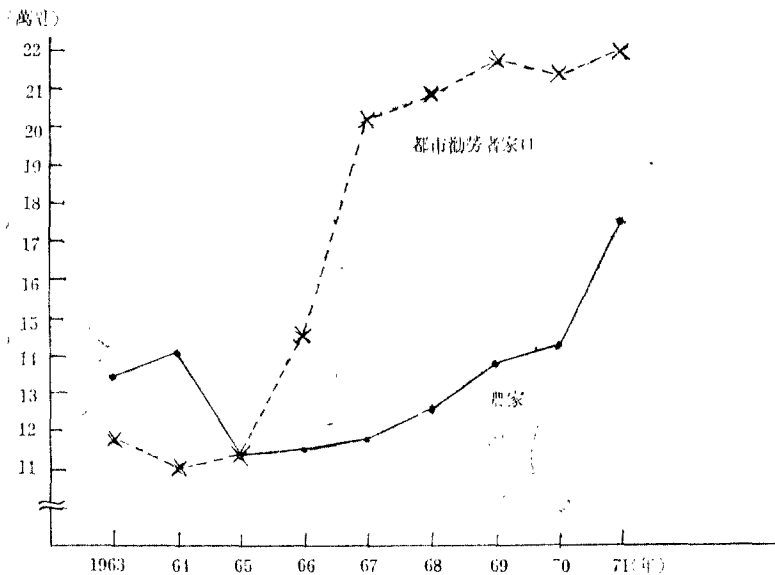
여기서는 1962年 以後의 時期에 局限하여 農家の 所得의 地位變動을 좀 詳細히 觀察해보자.

먼저 農家戶當實質所得의 움직임을 본다. 農家實質所得算出을 위해 여기서는 「農家經濟調查」에서 얻는 各年の 經常價格表示 戶當名目所得을, 「農村物價 및 賃料金調查」의 「農家家計用品購入價格指數」(1965年 基準值)로 테플레이트 하는 方法을 취했다.⁽¹⁾ 이렇게 해서 얻은 1965年 不變價格表示 農家戶當實質所得은 1959年의 96千원에서 64年의 140千원에 이르기까지 持續的으로 增大해 왔으나, 65年에 112千원으로 急落한 이래 緩慢한 回復傾

(1) 但 1971年에 관해서는 1970年 基準指數를 1965年 基準指數에 링크시켰다.

向을 보여 왔으나 69년에 이르기까지는 61年の水準을 回復하지 못하였다. 1970년에 와서야 農家實質所得은 61年の水準을 回復하게 되었으며 71년에는 異例的인 向上을 보이고 있다.

한편 農家의 所得에 있어서의 相對的인 地位變動을 觀察하기 위해 都市勤勞者家口의 實質所得을 算出・對比해보자. 여기서 比較의 對象으로 都市勤勞者家口를 택한 것은 理論的으로 恣意的이지만 農家가 離農하는 경우 이 階層으로의 移動이 가장 많다는 事實에 根據를 두고 있다. 都市勤勞者家口實質所得算出을 위해 여기서는 1963年 以來 實施되고 있는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의 「都市家計調査」에 나타난 「全都市勤勞者家口」의 家口當平均名目所得을 「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1965年 基準)로 테플레이트 하는 方法을 취하였다.⁽²⁾ 그 結果를 農家戶當實質所得의 움직임과 對比한 것이 <第II-2圖>이다. 勤勞者家口의 實質所得(1965年 價格)은 1963年の 118千원에서 71年の 220千원으로 8年間に 約 2倍에 달하는



<第II-2圖> 農家 및 都市勤勞者家口의 實質所得(戶當年間, 1965年 價格)

急速한 增大를 보이고 있어, 農家所得의 增大가 매우 不振한 데에 비해 極端的인 對照를 이루고 있다. 勤勞者家口實質所得의 年次的 움직임을 보면, 1964, 5年間に 停滯하고 있던 것이 66, 67년에 急速한 上昇을 보여 67年 以來에는 20萬원 以上の 線에 定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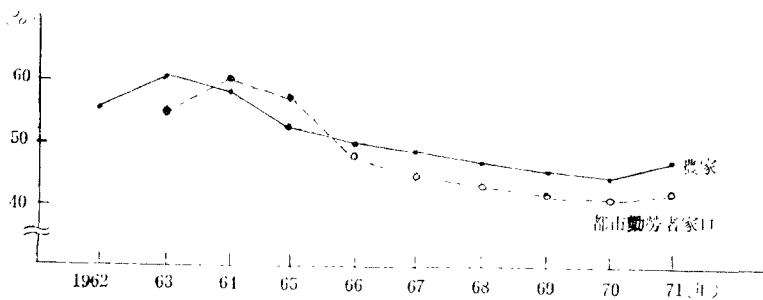
(2) 1963, 64年에 관해서는 「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系列을 얻을 수 없으므로 「서울消費者物價指數」로 代用하였다.

이와 같은 兩者의 움직임을 對比해 보면, 1964년에 이르기까지 都市勤勞者家口所得을 上廻하고 있던 農家所得은 65년에 들어 그것을 下廻하게 되고 66, 67年間に 急速한 格差 擴大를 거쳐 70, 71년에 이르기까지 顯著的한 所得格差는 甚로 縮小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의 比較는 單純한 世帯所得간의 對比일 뿐, 家口員數나 物價 이외의 都市·農村間의 生活條件의 差異 등의 要因은 一切 考慮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兩者간의 嚴密한 所得的 地位의 比較指標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65年頃을 轉換點으로 하여 農家の 相對的인 所得上의 地位는 急速히 低下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所得格差는 60年代를 거치는 동안 그대로 持續되어 왔다는 事實은 確認할 수 있다.

다음에는 이 期間의 農家經濟變動이 農家の 生活水準에 미친 影響을 보자. 生活水準變動을 把握하는 指標로서 여기서는 英鎊係數를 택한다. 實質所得變動에 따른 消費支出의 費目構成 중 가장 銳敏한 反應을 보이는 것은 食料費이며, 住居, 光熱, 被服費 등은 所得變動에도 不均하고 支出構成比變動이 微微하다는 事實은 널리 認定되고 있는 經驗的 法則이다. 家計費의 支出構造는 地域이나 家計의 個別的 屬性에 따라 同一所得階層에 屬하는 家計間에 있어서도 差異를 나타낼 것이지만, 總體的으로 본 家計支出의 費目構成 특히 食料費支出構成比의 時系列變動은 生活水準의 變動을 나타내는 重要的 指標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農家經濟調査」의 戶當平均家計費支出 중 食料費의 構成比 즉 農家の 英鎊係數는 1963年의 60% 水準에서 70년에는 46%에 이르기까지 急激한 低下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인 <第II-3圖>에 따르면, 1960年代에 들어 韓國의 農家は 相當히 急速한 消費生活水準의 向上을 經驗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第II-3圖>에는 農家生活水準變動의 相對的인 位置를 把握하기 위해 都市勤勞者家口의



<第II-3圖> 農家 및 都市勤勞者家口의 英鎊係數

英鎊係數를 農家の 그것과 對比시켜 보았다. 1964, 5年을 除外하고는 農家の 英鎊係數는 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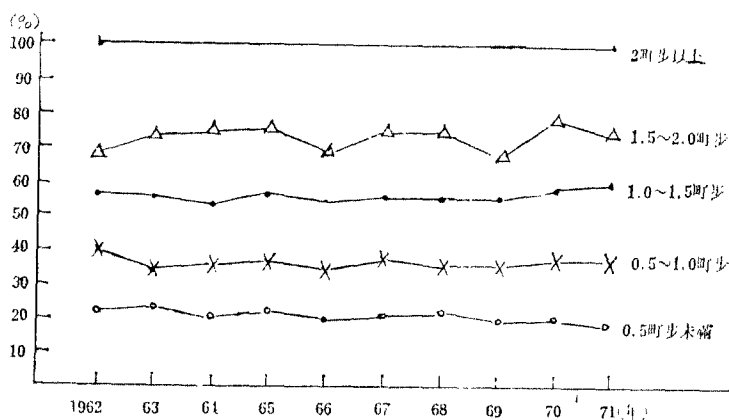
市勤勞者家11의 그것보다 5% 포인트쯤 높은水準에서 兩者가 나란히 漸減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變動係數의 變動을 指標로 比較하는 限 平均的인 農家は 平均的인 都市勤勞者家11에 비해 生活水準이 低位일 뿐 아니라, 앞서 實質所得에서 본 바와 같이 生活水準의 格差幅도 縮小의 氣味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農家階層別 所得格差의 進展

여기서는 이제까지 總體로서 考察해 온 農家所得變動이 農家階層別로 볼 때 어떠한 構造變動을 同作하면서 進行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자.

農家階層區分의 指標에 대해 먼저 言及해 둘 必要가 있다. 農家階層區分의 經濟指標로서는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業資本額 또는 農產物販賣額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農家が 保有하는 耕地面積을 階層區分의 指標로 採用하기로 한다. 그 理由는 대부분의 可用統計資料가 耕地面積別農家區分을 採用하고 있다는 便宜上의 문제 뿐 아니라, 耕種農家が 農家戶數의 95% 이상을 占하고 있는 同質的인 穀作中心의 農業構造 아래서는 耕地規模가 農業所得 등 經濟的 指標와 密接한 比例關係에 있다고 假定해도 無妨할 것이기 때문이다.

〈第II-4圖〉는 耕地規模 2町步 以上の 上層農家を 基準으로 하여 그밖의 階層의 農家所得相對比를 算出한 것이다. 階層間農家所得格差의 年次的 움직임은 1964, 66, 69, 71년에는 尙少한 擴大를 보였으며, 1965, 67, 70년에는 약간의 縮少를 보여 왔다. 그러나 趨勢的으로는 階層間의 農家所得格差는 매우 安定的인 幅을 維持해 오고 있다. 즉 2町步 以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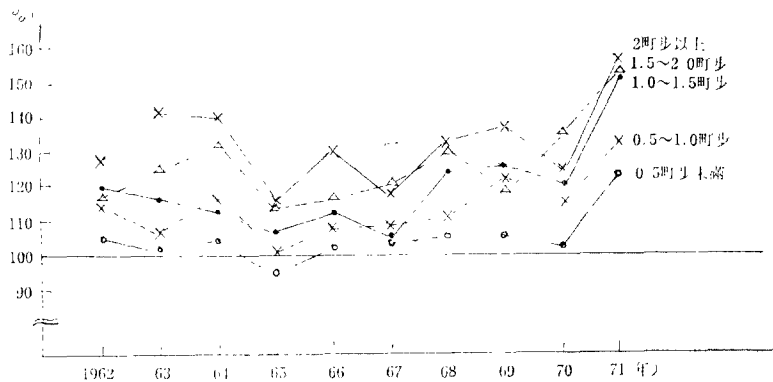
〈第II-4圖〉 耕地規模別 農家所得相對比(2町步以上 = 100)

層을 100으로 할 때, 1.5~2町步層은 75% 內外, 1~1.5町步層은 60% 內外, 0.5~1町步

層은 40% 內外, 0.5町步未滿層은 30% 內外의 水準에서 各各 安定되고 있다.

階層間農家所得의 年次的 움직임을 農業成長率의 움직임과 關連시켜 보면, 格差가 縮小된 1965, 67, 70 年은 例外없이 農業成長率이 마이너스였던 해인 데 비해, 格差가 擴大된 1964, 66, 69, 71 年은 豐作으로 農業成長率이 높았던 해이다. 이러한 現象은 耕地面積이 좁은 農家일수록 農業所得依存度가 낮다는 事實에 基因하는 것이다. 한편 相對比로 본 農家階層間의 所得格差가 傾向의으로 不變이며 絕對額으로 본 所得格差가 擴大一路에 있다는 事實은 耕地가 좁은 下層農家가 低所得克服을 위해 進出할 수 있는 農外の 就業機會가 不充分하다는 事實을 示唆하는 것이다.

〈第II-5圖〉는 農家階層別所得의 家計支出充足度の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1965 年의 0.5町步未滿農家階層에 있어 農家所得이 家計支出을 充足시키지 못해 마이너스의 貯蓄이 不可避했던 것을 例外로 하면, 期間 중 어느 時期나 어느 階層에 있어서도 農家所得은 家計支出을 充足시키고 多少나마 貯蓄餘力을 남기고 있다. 農家經濟의 剩餘幅은 거의 耕地規模에 正比例하는 關係에 있어, 1971 年의 異例的인 好調를 제외하면, 各階層의 剩餘幅은



〈第II-5圖〉 耕地規模別 可處分農家所得의 家計支出充足度

0.5町步未滿層이 家計費支出額의 3—5%, 0.5—1町步層이 10% 前後, 1—1.5町步層이 15% 內外, 1.5—2町步層이 20% 內外, 2町步 以上層이 30% 內外의 分布를 각각 보이고 있다. 이것은 前掲 〈第II-1圖〉에서 全階層의 平均値가 0.5—1町步層과 1—1.5町步層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아, 貯蓄餘力을 基準으로 하여 農家를 上下層으로 兩分한다면 그 境界는 1町步 內外에 있을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한편 農家經濟剩餘幅의 年次的 變動을 보면 比較的 剩餘幅이 컸던 것은 1964, 66, 69.

71年이었던 데 비해, 그것이 작았던 것은 1965, 67, 70年이었다. 이것을 農業成長率의 年次的變動과 關聯시켜 보면 農業成長率과 農家經濟剩餘幅의 大小間에는 密接한 正의 相關關係가 있다. 結局 農家は 어느 階層을 莫論하고 農作의 豐凶 내지 農產物價格의 움직임에 銳敏한 影響을 받고 있으며, 農業所得에의 支配의 依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農家の 貯蓄餘力 내지 經濟的 剩餘의 움직임은 農作의 豐凶의 農產物 相對價格變動에 따라 銳敏한 年次的 波動을 보이면서도, 趨勢的인 好轉傾向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

III. 農業所得의 構造

自營農의 立場에서 본 農業所得은 農家가 自營農業을 통해서 얻는 人的混合所得을 말한다.⁽³⁾ 이것을 計測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農家は 生産된 農產物을 販賣하거나 自家消費에 充當하며 여기서 얻는 販賣收入과 自家消費分의 評價額을 합친 만큼의 「農業收入」을 얻는다. 한편으로 農業收入을 얻기 위해서는 生産에 必要한 肥料, 種子, 農機具 등의 生産資材를 購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農地其他를 借入하거나 家族 以外的 他人勞動을 雇傭함에 있어 「農業支出」이 행해진다. 自營農家가 農業에서 얻는 所得은 基本的으로는 위의 農業收入에서 農業支出을 뺀 差額에 該當하는 것이다. 그러나 農業所得의 算定에 있어서는 이밖에도 考慮에 넣어야 할 項目이 있다. 즉 農業收入의 計算에 있어서는 當年の 生産物販賣分과 自家消費分 以外에 次年으로 移越되는 當年産農產物의 在庫增減을 考慮해 주어야 하며, 大動植物의 그 年度內에 있어서의 價値增殖額을 加算해 주어야 한다. 한편 支出面에 있어서는 自家所有固定資産使用에 따른 減價償却과 農業生産資材의 在庫增減을 考慮해 주어야 한다. 이들 諸項目을 考慮한 후의 農業收入을 「農業粗收益」, 農業支出을 「農業經營費」라고 하며, 前者에서 後者를 뺀 差額이 計測上的 自營「農業所得」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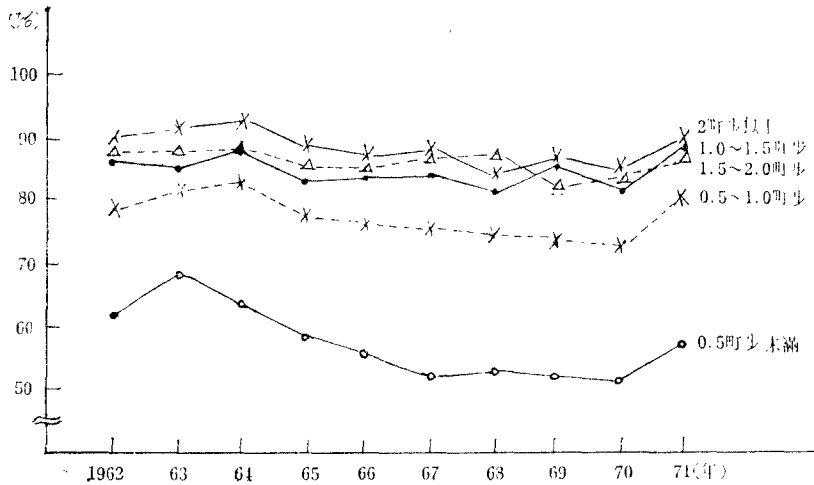
여기서는 1962-71年間的 農業收入과 農業支出 兩面에 있어서의 構造變動을 吟味함으로써 이 期間의 農業生産面에 있어 일어난 質的變動을 抽出해 보고자 한다.

1. 階層別 農業所得의 分布變動

먼저 農家の 農業所得依存度를 階層別로 나누어 좀 자세히 觀察해 보자. 農家所得 중 農

(3) 여기서 農業所得이라 함은 農業業主所得에 該當하는 概念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農業部門에서 發生하는 生産所得의 全部가 包含되는 것이 아니라 農業賃勞動者의 所得 등은 除外된다. 이章의 目的은 農業經營單位로서의 農家の 農業所得 및 農業收入·支出構造를 分析하는 데 있으므로, 農業業主所得의 概念으로서 農業所得이란 用語를 쓰기로 한다.

業所得이 占하는 比率은 앞서 <第II-1圖>에서 본 바와 같이 1971年의 異例의인 高水準을 除外하고는 80% 內外에 머물고 있다. 이것을 農家階層別로 보면 <第III-1圖>에 보인 것과 같이 農業所得依存度는 耕地規模가 클수록 높고 작을수록 낮은 順으로 規則性을 보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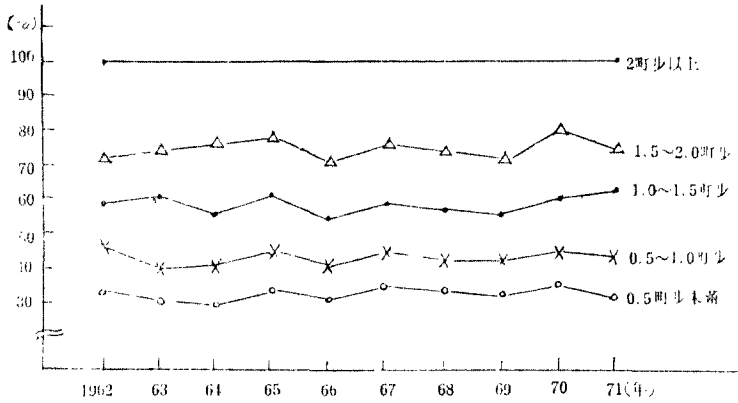


<第 III-1 圖> 耕地規模別 農家の 農業所得依存度

어, 0.5町步未滿層이 50-60% 臺, 0.5-1町步層이 75-80% 水準, 1町步 以上層은 모두가 85-90%線에 集中되어 있다. 한편 그 年次的 움직임을 보면, 0.5町步 未滿層에 있어 持續的인 低下傾向을 찾아 볼 수 있을 뿐, 그밖의 모든 階層에 있어서는 뚜렷한 低下傾向을 찾아 보기는 어렵고 거의 一定한 比率을 유지하고 있어, 農業所得이 農家經濟에 있어 支配的인 比重을 차지하는 構造에는 別다른 變動이 없다. 다만 耕地面積이 극히 좁은 0.5町步未滿의 零細農家만은 他階層에 비해 農業所得依存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상당히 빠른 速度로 農業所得依存도가 低下하고 있어, 1962-64年間에 65%이었던 것이 70年頃에는 50%에 가까운 水準으로 急落하고 있다. 결국 零細農은 所得의 折半을 農業에서 나머지 折半을 農業外에서 얻고 있는 셈으로서 零細農層의 兼業의 性格은 뒤에서 보는 바이지만, 農業所得依存度の 指標만을 통해서 보는 限, 唯一하게 相當히 兼業化가 進展되고 있는 階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耕地規模別 農業所得의 相對比를 통해서 階層間의 農業所得格差가 어떻게 變動되어 왔는가를 觀察해 보자. <第III-2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2町步 以上層의 農業所得을 100으로 할 때, 0.5町步未滿層의 그것은 거의 20% 內外, 0.5-1町步層은 35-40%, 1-1.5町步層은 55-60% 水準, 그리고 1.5-2町步層은 70-80% 水準에서 약간의 變動幅을

지나면서도 階層別 農業所得格差는 대체로 一定한 幅을 維持하고 있다. 格差幅의 움직임



〈第 III-2 圖〉 耕地規模別 農業所得相對比(2町步以上=100)

을 약간 자세히 觀察하면, 1町步以上層에 있어서는 僅少하지만 縮少의 傾向이, 0.5--1町步層에 있어서는 거의 無變動인 데 비해 0.5町步未滿層만은 唯一하게 上層과의 農業所得格差가 漸次擴大되고 있는 傾向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는 0.5町步未滿의 零細農層은 比較的 急速한 脫農化의 길을 걷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 農業所得率의 分析

農業所得率이란 農業粗收益에 대한 農業所得의 比率을 말한다. 農業粗收益에서 農業經營費를 뺀 差額이 農業所得에 해당한다 함은 前述한 바이지만, 이들 關係를 式으로 나타내면,

$$\begin{aligned}
 (\text{農業所得}) &= (\text{農業粗收益}) - (\text{農業經營費}) \\
 (\text{農業所得率}) &= \frac{(\text{農業所得})}{(\text{農業粗收益})} \\
 &= 1 - \frac{(\text{農業經營費})}{(\text{農業粗收益})} \\
 &= 1 - (\text{農業費用率})
 \end{aligned}$$

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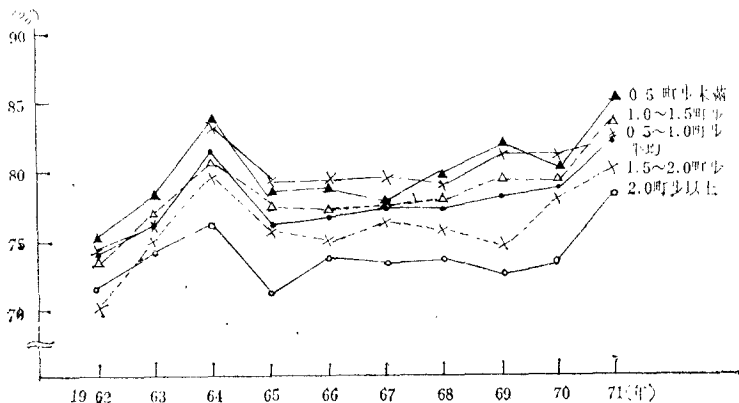
農業所得率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重要하다. (4) 첫째, 農業組織의 構造的 變動이다. 즉 農業生産이 自給狀態에서 販賣生産으로, 또는 作物中心에서 畜産의 比重이 높아짐에 따라 費用率이 높아지는 傾向이 생기며 그 결과 農業所得率은 長期에

(4) 大川一司編, 『日本經濟の成長率』, 1956, p.55, 參照.

있어 趨勢인 低下를 보이게 된다. 둘째, 農産物의 相對價格變動이다. 만약 農業經營費項目의 農産物에 대한 相對價格이 上昇하면 所得率은 低下하게 되며 그것이 下落하면 所得率은 높아지게 된다. 셋째로는 收量의 自然的 原因으로 인한 變動 즉 豐凶作의 影響이다. 豐凶作에 관계없이 營農費用의 投入은 거의 一定한 것이므로 所得率은 豐作의 경우에는 上昇하며 凶作의 경우에는 下落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所得率의 水準과 關聯하여 또 한가지 考慮해야 할 問題는 生産額에서부터 所得額은 非定하기 爲해 控除해야 할 費用額의 內容이다. 이 控除項目의 範圍는 農業所得의 概念에 關한 理論的 態度나 分析의 目的에 따라 달라질다. 즉 農業生産의 純額에 注目하는가 아니면 農業經營主에게 歸屬하는 分配所得에 注目하는가에 따라 控除項目의 範圍는 달라지게 된다. 만약 前者의 立場에서 生産所得을 問題로 한다면, 費用으로서는 農業經營費 중 直接費 즉 投入된 物財費만을 控除하면 充分하며, 農業에서 生産된 所得의 歸屬은 問題로 삼을 必要가 없다. 그러나 後者의 觀點에서 分配所得을 問題로 한다면 直接的 物的 經費 이외에도 支拂利子諸負擔, 支拂小作料, 支拂勞賃 등의 要素費用까지도 費用項目으로 控除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컨대 農業의 生産性을 問題로 할 때는 前者의 方式을 採用하는 것이 適切하며, 農業經營者의 福祉厚生을 問題로 할 때는 後者의 方式이 適切할 것이다. 그런데 「農家經濟調査」의 農業經營費는 自營農의 立場에서 計上된 것이므로 後者의 方式에 비르고 있을 것은 明白하다. 따라서 「農家經濟調査」에서 集計되고 있는 農業經營費를 控除項目으로 하여 算出되는 所得率은 分配觀點에서 본 所得率에 該當하는 것이다.

〈第III-3圖〉는 「農家經濟調査」를 上臺로 하여 分配觀點에서 본 農業所得率의 움직임을 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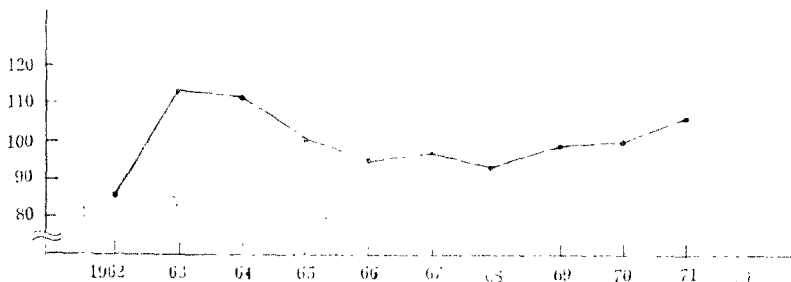


〈第 III-3 圖〉 耕地規模別 農業所得率(分配觀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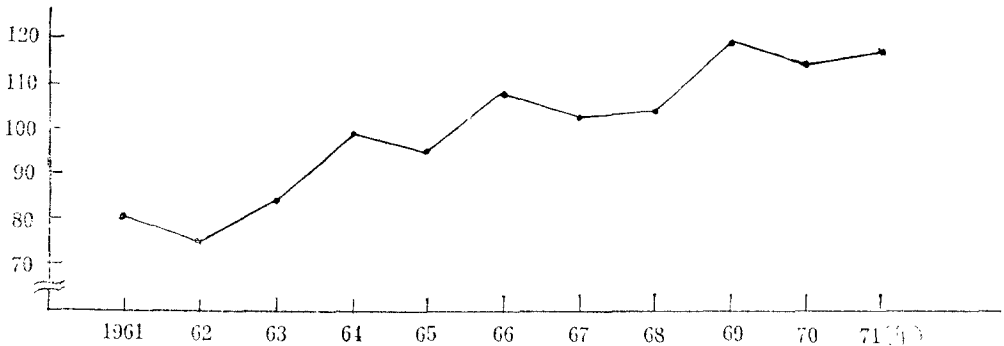
層別로 觀察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所得率은 약간의 年次的 波動을 보이고 있으나 趨勢的인 下向傾向을 갖아 보기는 어렵고, 全階層平均 77-78% 線에서 安定되어 있다. 耕地 規模別로 이를 나누어 보면, 大農層으로 갈수록 所得率은 낮아지는 傾向을 찾아볼 수 있다. 즉 1町步未滿層은 거의 80%에 가까운 비교적 높은 所得率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2町步以上層은 73% 内外의 비교적 낮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결국 小細農層에 비해 大農層은 經營主의 立場에서 본 費用率이 약 5-7% 높은 셈이다.

所得率의 年次的 變動을 보면 全階層平均所得率이 특히 높았던 것은 1964年과 71年이며, 특히 낮았던 것은 1962年이다. 이를 前述한 農業所得率에 影響하는 諸要因과 關聯시켜 考察해 보자. 農業組織의 構造變動이라는 주요 長期에 걸쳐 影響하는 要因을 別途로 천다면 短期의 所得率은 農産物의 相對價格變動과 豐收에 의한 收量變動에 의해 左右된다. 여기서는 農産物相對價格의 指標로서 農協의 「農村物價 및 賃料金調査」의 「農家販賣 價格指數」와 「農家購入價格指數」의 比로서 나타낼 수 있는 「農家交易條件」의 年次的 變動을 採用한다. 이렇게 概念된 農家交易條件은 相對價格의 指標로 使用함에 있어서는 購入 面에 있어 家計用品이 包含된다는 점 등 약간의 理論的인 問題가 介在하지만 大體的인 움직임을 把握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支障이 없을 것으로 判斷된다. 또 豐收到에 의한 收量變動의 指標로서는 農林部의 「農業生產指數」를 援用하기로 한다. 이들 두 指標의 움직임을 各各 圖示한 것이 <第III-4圖> 및 <第III-5圖>이다.

이들 두 개의 圖와 前掲 <第III-3圖>와를 아울러 觀察하면, 1964년에 農業所得率이 특히 높았던 것은 交易條件이 매우 有利했을 뿐 아니라 生產指數도 急速히 上昇한 結果로 볼 수 있으며, 1971년에 所得率이 높아진 것은 生產指數보다는 交易條件의 好轉에 크게 힘입은 結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所得率이 특히 낮았던 1962年은 14作으로 生產指數가 前年에 비해 下落한 위에 交易條件도 매우 不利했던 結果이다.



<第 III-4 圖> 農家交易條件의 變動(1965年=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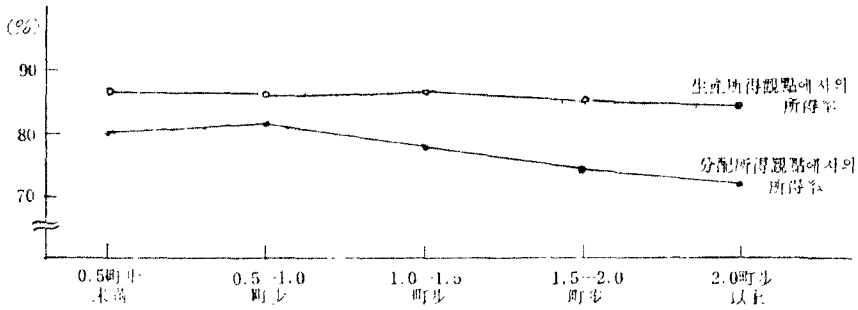


〈第III-5圖〉 農業生產指數(1964-66年=100)

이와 같이 期間中에 일어난 所得率의 顯著的 年次的 變動은 農產物相對價格과 豐凶에 따른 收量變動으로 說明될 수 있다. 그러나 所得率의 趨勢의 低下傾向은 별로 進展되지 못하고 있다고 判斷된다. 따라서 所得率變動分析을 통해서 보는 限, 農業組織의 構造的 變動은 1960年代를 통하여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推定된다. 이 點에 관해서는 農業收入 및 費用分析에서 약간 자세히 考察하기로 한다.

다음에는 耕地規模別 農家階層에 따라 所得率의 差異가 생기는 原因과 그 含意에 관해 檢討해 보자. 前述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다루어온 所得率은 分配所得觀點에서의 概念으로서 費用項目 中에는 直接的 物的經費 이외에 支拂小作料, 勞賃 등이 包含되어 있다. 따라서 階層間에 所得率의 差異가 發生할 수 있는 素地는 直接 物的經費와 그밖의 要素費用項目과의 兩者에 있다. 만약 物的 費用率의 差異에 原因이 있다고 한다면 階層間에 農業經營技術構造的 差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要素費用面에만 差異가 있는 경우에는 生産函數上의 差異가 아니라, 階層間에는 他人勞動의 雇傭이나 農地其他의 賃借關係 등 經營形態의 差異가 所得率의 差異를 招來하는 原因이라고 推定할 수 있다.

〈第III-3圖〉에서 階層別로 본 所得率格差의 分布는 어느 年度에 있어지나 거의 마찬가지로 이다. 따라서 所得率의 階層別格差의 原因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느 特定年度만을 檢討하면 充分할 것이다. 여기서는 1970年의 値를 擇하기로 한다. 〈第III-6圖〉는 1970年에 관해서 앞에서 본 바 分配所得觀點(農業經營者의)에서 본 耕地規模別所得率과 아울러, 經營者의 立場에서 본 費用項目 中에서 要素費用에 속하는 支拂勞賃과 農地賃借料를 除外한 純生産額으로서의 所得率을 算出하여 兩者를 對比한 것이다. 分配觀點에서는 直接 物的經費 이외에 支拂勞賃, 農地賃借料 등을 費用으로서 計算하므로 所得率은 그만큼 낮아지며, 農業生産의 附加價值額을 算出하는 生産所得觀點에서는 이들 要素費用을 扣除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所得率은 높아지게 된다. 〈第III-6圖〉에서 兩者간의 格差는 各階層의 農家가 支拂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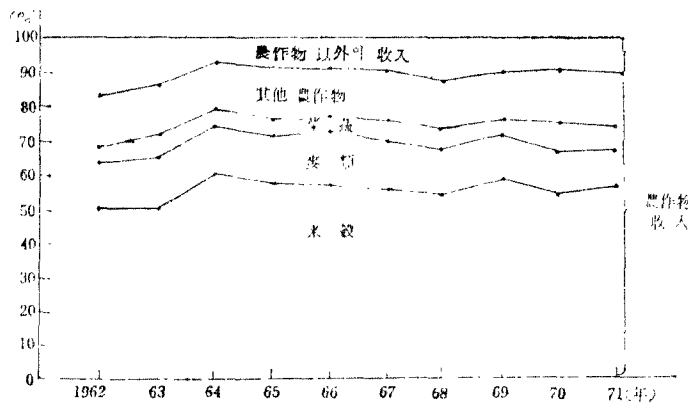
〈第III-6圖〉 1970年의 農業所得率

는 要素費用의 農業粗收益에 대한 比率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同圖에서 明白히 看取되는 事實은 耕地規模가 달라짐에 따라 經營者의 立場에서 본 所得率은 상당히 달라지면서도 純生産額의 觀點에서 본 所得率은 거의 不變이라는 점이다. 결국 農業生産에 投入된 直接的인 物的經費의 比率은 어느 階層에 있어서도 거의 같다는 結論에 到達한다. 다만 階層間의 差異는 自家勞動의 不足을 補充하기 위한 雇傭勞動의 使用 내지 借地에 따른 支拂勞賃 또는 支拂農地賃借料에 局限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經營規模의 大小에도 不拘하고 農家가 採用하는 物的 生産要素의 結合方式은 거의 同一하며 農家階層에 따른 技術水準 내지 類型의 差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農業收入 및 支出의 構造

農業生産構造의 變動을 좀 더 詳細히 解明하기 위해 農業收入과 支出의 構造變動을 檢討해 보자.

먼저 農業收入의 側面부터 考察하기로 하자. 〈第III 7圖〉는 農家가 農業經營을 통해서 얻



〈第III-7圖〉 農業收入의 構成比

은 戶當平均收入의 源泉別構成의 變動을 보인 것이다. 農業收入을 大別하여 食糧作物, 菜蔬, 特用作物, 果樹 등의 耕種部門을 包含하는 農作物收入과 畜產과 農産加工을 內容으로 하는 農作物以外收入으로 兩分하면, 1962, 3年을 除外하고는 農作物收入이 農業收入의 9割 前後의 絶對的 比重을 차지해 왔으며, 畜產 등의 收入은 全體의 1割에도 未及하는 微微한 比重을 차지할 뿐이다. 또 1962, 63年에 있어 다른 年度에 비해 農作物收入의 比重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 兩년에 걸친 米麥의 1作에 그 原因이 있는 것이지, 畜產 등 耕種外의 農業部門이 活潑했던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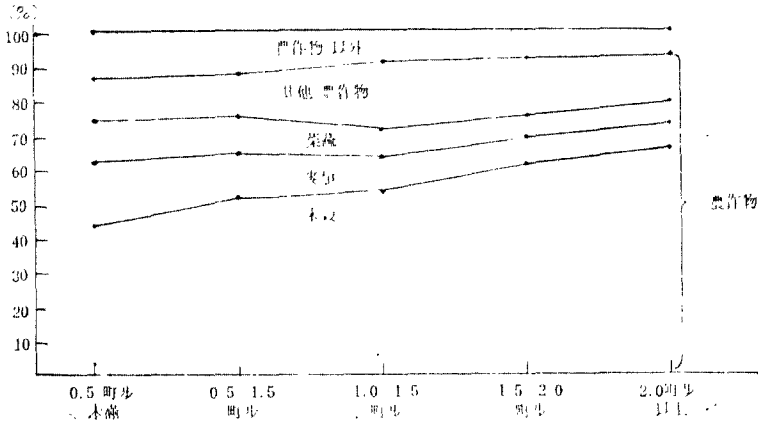
農業收入의 源泉을 作物別로 보면 米穀이 1962, 3年을 除外하고는 全體의 55-60%에 이르는 歴史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特徵的이며, 그밖의 作物類의 比重은 매우 낮다. 米穀 다음으로 收入의 比重이 높은 것은 麥類이지만, 麥類收入의 構成比는 期間中 初期의 15% 內外에서 後期の 10% 水準으로 持續的인 低落을 보이고 있다. 麥類의 比重低下는 원래 米食中心의 食糧消費構造 아래서는 麥類는 米穀을 補充하는 下級財의 位置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性格의 위에, 麥類의 內容이 大·裸麥中心이며 小麥의 生産이 매우 不振한 條件에 있어 斜陽作物의 地位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事情이 介在한다.⁽⁵⁾ 그밖에 菜蔬, 果樹, 特用作物 등은 比較的 急速한 生産 및 收入增大를 보여오고 있으나, 아직도 菜蔬를 除外하고는 그 額이 微微하며, 特用作物의 경우는 需要가 不安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價格 및 收入의 變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農作物以外收入에 관해서 본다면 蠶繭과 畜產이 계속해서 擴大를 보이고 있으나 絶對額에 있어서는 아직도 작으며, 이들 部門의 擴大에도 불구하고 總體로서의 農作物以外收入의 構成比는 踏步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農業收入의 構成은 米穀에의 依存度가 6割에 가까운 單作的 構造 아래서 아직도 他部門의 發展은 本軌道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第III-8圖>는 農業收入構成의 農家階層別差異를 考察하기 위해, 1970年의 耕地規模別農業收入의 構成比를 보인 것이다. 여기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이 特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大農層으로 갈수록 農作物收入의 比重이 높아지고 農作物以外收入의 比重이 낮아져 간다. 둘째 大農일수록 米穀에의 依存度가 急上昇하는 反面 麥類에의 依存度가 急低下하고 있다. 셋째, 米穀을 除外한 畜產, 菜蔬, 麥類 등의 比重은 小細農에 있어 높고 中·大農에 있어서는 매우 낮아진다.

小農層에 있어 麥類의 比重이 높은 것은 小農이 不足한 自家食糧을 補充하기 위해 畝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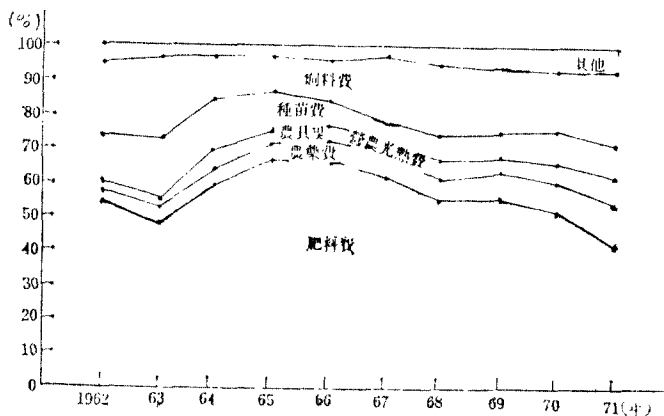
(5) 鄭英一, 「韓國食料需給의 變動과 展望」, 『經濟論集』, 第X卷 3號, 1972年 9月, pp.92-3, 參照.



〈第 III-8 圖〉 耕地規模別 農業收入의 構成比(1970年)

作麥作에 積極的인 데 비해, 大農層은 採算面에서 有利하지 않은 冬期麥作에 消極的인 傾向을 反映하는 것 같다. 또 米麥 以外の 部門은 그 經營이 收益面에서 不利하거나 不安定한 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大農層은 米作中心의 經營에 執着할 뿐 其他部門에의 多角化에 消極的인 反面, 小農層이 保有耕地 특히 畝不足의 補充과 保有勞動力의 燃焼를 위해 從事하는 性格을 띠고 있어 위에 본 바 階層間收入構成의 差異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觀點을 바꾸어 農業經營에 投入되는 費用面을 考察해 보자. 여기서는 農業經營의 技術的인 投入要素의 變動에 觀察의 焦點을 두고 있으므로 物的費用 즉 資材費支出構成만을 觀察한다. 〈第 III 9圖〉가 物的經費의 構成比變動을 보인 것이다. 가장 比重이 큰



〈第 III-9 圖〉 農業資材費支出의 構成比

것은 年次의 波動은 크지만 平均 50-60%에 달하는 肥料費이다. 그 다음이 역시 波動이 크지만 平均 20% 内外의 比重을 점하고 있는 飼料費이다. 그밖의 主要費目으로서 種苗費가 全資材費의 10% 内外, 農具 및 營農光熱費가 5% 内外의 比重을 各各 점해 오고 있으며, 農藥費는 初期의 2-3% 水準에서 最近에는 13%에 이르는 매우 急速한 構成比의 擴大를 보이고 있다.

資材費의 約 半分을 점하는 大宗인 肥料費의 比重이 1967年 以後 急速한 低下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은 肥料價格이 實質的으로는 政府의 管理下에 있어 政策的 意圖에 따라 調整된 可能性이 큰 바, 1960年代 後半 以來는 肥料價格引上率이 自由市場에서 決定되는 餘他的 資材價格의 上昇에 비해 緩慢했다는 事實을 反映하는 結果일 뿐, 肥料投入爲主의 農業 經營方式에 變動이 생긴 것은 결코 아니다.⁽⁶⁾ 한편 飼料費의 變動이 激甚한 것은 飼料投入量 中 相當部分이 輸入飼料 또는 輸入糧穀의 副產物로 充當되고 있어, 飼料供給量이 그 해 그해의 糧穀導入量과 時期에 따라 달라짐으로써 飼料의 需給量 및 價格이 安定되어 있지 못한 데에 그 原因이 있는 것 같다.⁽⁷⁾

觀察對象期間에 있어 가장 支出構成比擴大가 急速했던 農藥費와 相當히 낮은 水準에서 停滯해 있는 農具 및 營農光熱費의 움직임은 現段階에 있어서의 韓國農業의 技術變動의 性格을 端的으로 나타내고 있는 項目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期間中 投入增加가 가장 急速했던 農藥은 除草와 病蟲害防除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지만, 除草劑使用의 놀랄만한 增加는 從來 많은 勞力을 所要했던 除草作業에의 勞動節減에 매우 큰 效果를 가져 왔을 것이다.⁽⁸⁾ 이에 반해 機械化의 進展과 關聯하는 農具 및 營農光熱費支出은 매우 微微한 水準에서 踏步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變動傾向을 土臺로 해서 보는 限, 現段階에 있어 韓國農業의 技術發展類型은 肥料·農藥의 增投를 軸으로 한 生·化學的 技術(bio-chemical technology)의 線에 極端的으로 置重해 있으며 機械使用的(mechanical)인 類型과는 距離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農業技術의 類型面에서 볼 때, 1967年 頃부터 최근 銳敏하게 擡頭하고 있는 農繁期의 農業勞動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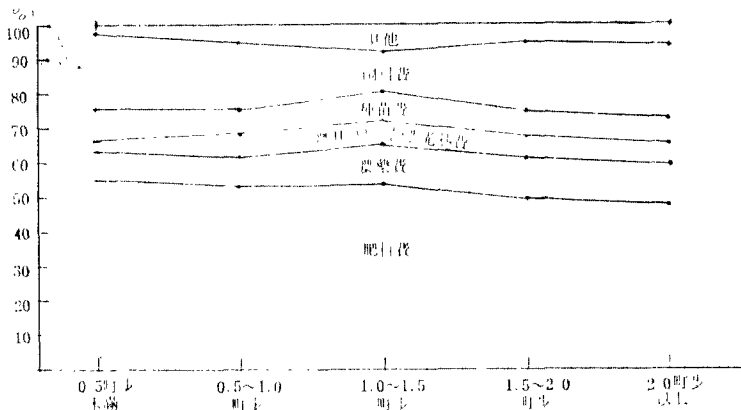
(6) 成分噸數로 본 肥料消費는 1961年의 308千噸에서 66年의 423千噸, 71년에는 605千噸으로 倍增해 왔으며, 특히 67年 以來의 增加가 異常 急速했다. 農林部, 『農林統計年報』, 1972年版, p. 82, 參照.

(7) 鄭英一, 「前揭稿」, p. 96, 參照.

(8) 農藥消費는 1962年의 7千噸에서 66年의 13千噸, 71年의 30千噸으로 4倍 이상의 增加를 보았다. 특히 그중 除草劑消費만을 보면, 1962年의 불과 10噸에서 66年의 130噸, 68年의 471噸, 70年의 5千噸, 71年의 8,300噸으로 幾何級數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農林部, 『農林統計年報』, 1972年版, pp. 102-106.

不足과 이에 따른 農業勞賃急騰⁽⁹⁾에 대해서, 經營側은 주로 農藥(특히 除草劑) 増投를 통해 除草作業에 所要되는 勞動力을 輕減시키는 方向으로의 對應을 活潑히 追求해 왔으나, 耕耘・植付・收穫 등 一貫過程의 勞動力節減을 위한 機械化의 方向까지의 反應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除草作業을 除外한 植付, 收穫을 포함하는 農繁期의 勞動力不足現象은 결코 解消되지 못하고 있는 狀態이다.

마지막으로 農家階層에 따라 資材投入構造에 差異가 있는가 어떤가를 確認해 보기 위해 1970年의 耕地規模別 農業資材費支出의 構成比를 보인 것이 <第III-10圖>이다. 여기서 보이



<第 III-10 圖> 耕地規模別 農業資材費支出의 構成比(1970年)

는 階層間의 差異는 1.5町步 以上の 上層으로 갈수록 肥料費의 比重이 약간씩 낮아지는 한편 農藥費의 比重이 높아져 가는 傾向이다. 이에 비해 機械使用의 指標로 분수 있는 農具 및 營農光熱費에 있어서는 階層間의 差異가 거의 發見되지 않는다.

위의 事實을 基礎로 할 때 階層에 따른 差異를 다음과 같이 推論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小農層은 大農層에 비하여 肥料를 한층 多量投下하여 土地生産性を 높이는 努力을 強化하는 傾向이 있는데 田間 農藥投入資材費의 一部를 節約하여 自家勞動으로 代替함으로써 勞動生産性의 提高를 犧牲하는 傾向이 보인다는 점이다. 요컨대 基本的으로는 土地生産性を 높이는 生・化學的 農業技術類型의 線에 따르고 있으면서도 小農層은 大農層에 비해 相對的으로 勞動生産性 보다는 土地生産性を 높이는 데 一層 執着하는 傾向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事實은 아직도 農業以外部門에의 就業機會가 制約되어 있다는 事實을 反映

(9) 農協의 「農村物價 및 賃料金調査」에 의하면, 農業勞動賃金指數는 1965年의 100에서 66年 113, 67年 138, 68年 171, 69年 213, 70年 279, 71年 335로 急騰하여 왔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營農機械化의 程度는 階層에 따라 별다른 差異가 없이 全般的으로 낮은 水準에 있으며 所得率을 통해 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物的生産要素의 投入構造를 통해서 볼 때 大農層과 小農層에 重要한 差異가 없다는 점을 確認할 수 있다.

요컨대 1960年代를 통해 韓國農業은 非農業部門의 急速한 成長이라는 環境變動 속에서, 生産物의 構成과 生産要素投入의 技術構造의 兩面에 있어 여전히 米穀中心의 單作構造와 肥料·農藥增投入 中心으로 하는 技術體系의 持續이라는 점에서 基本的인 變化를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事實은 階層別로 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1967年頃 以來 農繁期를 中心한 農業勞動力不足과 이에 따른 農業勞賃의 急速한 騰貴傾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에 對인 對應으로서 除草劑使用이 急速度로 進展되고 있는 점이 特徵的인 變動이라고 할 수 있다.

IV. 兼業所得의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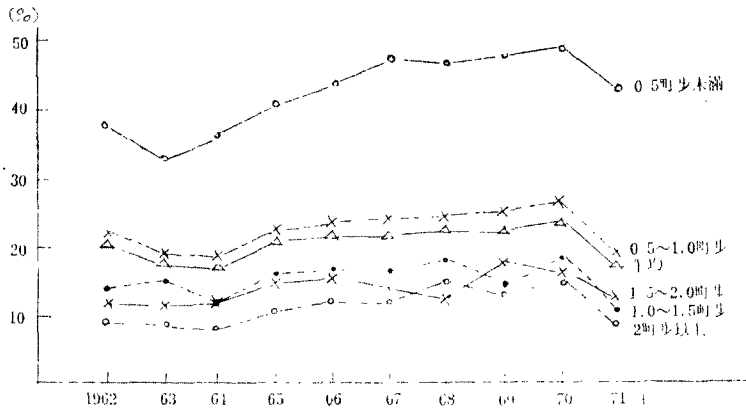
前章에서 우리는 分析의 視角에 따라 農家の 自營農業所得만을 農業所得으로 概念하여 考察하여 왔다. 따라서 여기서는 農家所得中 自營農業에서 얻는 農業業主所得을 除外한 모든 源에서 얻는 所得을 兼業所得⁽¹⁰⁾으로 一括하여 그 水準과 構成의 變動을 考察하기로 한다. 이렇게 본 廣義의 兼業所得에는 農家構成員이 自營하는 農業 以外的 他產業에서 얻는 自營兼業所得, 農業 以外的 他產業에 雇傭되어 獲得하는 賃金 및 給料所得, 他農家の 農業經營에 提供된 農業賃勞動에 대한 賃金, 農家が 所有하는 勞動 以外的 生産要素를 他人에게 提供하여 얻는 賃料金 및 利子所得 그리고 그밖의 被贈補助 등의 雜多한 項目이 包含된다.

1. 兼業所得의 水準

이러한 넓은 意味의 兼業所得이 農家所得 중에서 차지하는 比重의 움직임을 본 것이 <第 IV-1圖>이다. 이 比率는 農家所得 中 自營農業所得을 除外한 殘餘에 該當하는 것으로 前章에서 言及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簡略히 特徵的인 面을 指摘하는 데 그친다. 全階層平均으로 보아, 農家所得 中 兼業所得의 몫은 20% 前後에서 극히 倣少하나마 擴大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耕地規模別로 보면, 1町步 以上層의 경우는 兼業所得依存도가 大體로

(10) 여기서 말하는 兼業所得은 「農家經濟調査」에 있어서의 ‘農外事業所得’과 ‘兼業所得’ 項目을 합친 것과 그 範圍가 一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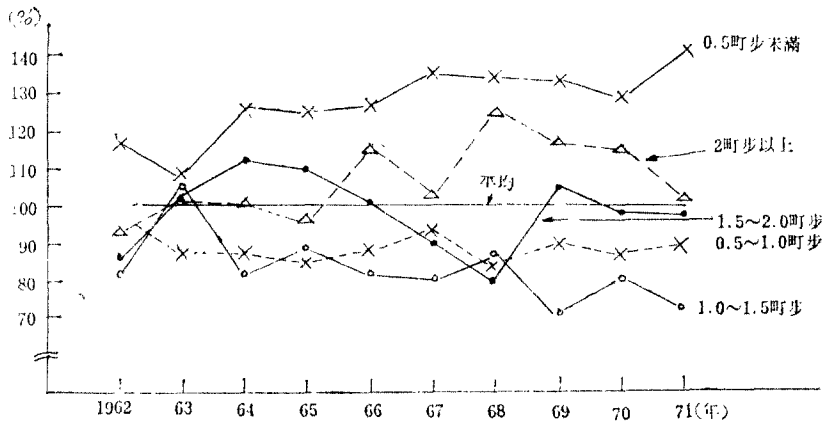
15% 線을 下廻하고 있으며, 0.5—1町步層이 20% 内外로서 全階層平均値를 약간 上廻하



〈第 IV-1 圖〉 耕地規模別 農家の 兼業所得依存度

고 있는 데 비해, 0.5町步未満層만은 兼業所得依存도가 平均 40%를 넘고 있을 뿐 아니라 趨勢的으로도 急遽한 擴大를 보이고 있는 점이 特徴的이다.

또 〈第 IV-2 圖〉에서 보인 兼業所得總額의 階層間比較를 통해서 볼 때 0.5町步未満層은 全階層平均에 對比하여 30% 程度의 높은 兼業所得을 얻고 있어 零細農層의 兼業進出이 가장 活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兼業所得額이 가장 낮은 階層은 1—1.5町步 및 0.5—1町步層農家이다. 그리고 1.5—2.0町步 및 2町步 以上の 大農層은 兼業分野에 있어서도 全階層平均 以上の 所得을 얻고 있다.



〈第 IV-2 圖〉 耕地規模別 兼業所得額의 相對比(全階層平均=100)

여기서 0.5町步 未満의 零細農家に 있어 兼業所得依存度 및 兼業所得額이 어느 階層보다도 가장 높다는 事實은 零細農의 土地制約 때문에 오는 農業所得의 不足을 補充하기 위한 不可避한 兼業部門進出의 結果 이룬바 “家計補助型兼業”⁽¹¹⁾이 活潑한 때문에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農業所得의 不足을 補充하는 것이 兼業進出의 主된 動機라고 한다면 農業所得이 大農層에 비해 低位인 小·中農層의 兼業進出이 大農層의 그것보다 오히려 不振하고 있는 現象을 어떻게 說明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생긴다. 여기에 兼業機會가 充分치 못하다는 勞動需要面의 制約條件이 介在된다. 當然 必要도 없이 兼業所得이 形成될 수 있기 위해서는 兼業에의 送金動機라는 兼業勞動의 供給側의 條件과 아울러 兼業勞動을 받아들일 수 있는 需要側의 條件이 同時에 充足되지 않으면 안된다. 前者는 兼業所得의 絕對的, 相對的 低位를 解消하여야는 農家側의 動機에 의해 決定되는 것이지만, 後者의 條件은 農業 以外の 産業에 있어서의 勞動供給事情이라는 個別農家の 事情과는 別個의 領域에서 決定되는 것이다. 農業所得이 大農層에 비해 오히려 低位에 있는 小·中農層의 兼業所得이 大農層에 미치지 못하는 點은 供給過剩·需要不足의 兼業勞動市場에 있어 小·中農層이 大農層에 비해 不利한 立場에서 있는 社會的 事情을 反映하는 것으로 理解된다.

2. 兼業所得의 構造分析

兼業所得은 이것을 自營·非自營에 따라 自營兼業所得과 非自營兼業所得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自營兼業所得은 機能面에서 보면 自營業主所得으로 흔히 分類되는 混合所得의 性질에 속한다. 이에 비해 非自營兼業所得은 農家가 保有하는 勞動力, 土地, 資本 등의 生産要素를 他人의 經營에 提供한 代價로서 獲得하는 機能所得의 合計이다. 따라서 이것은 各項目의 內容에 따라 비교적 손쉽게 勞動所得과 財產所得으로 區分될 수 있다. 즉 「農家經濟調査」의 ‘事業以外收入’ 項目들 중, 農地賃貸料, 其他賃貸料, 配當利子 등은 明白히 財產所得에 속하는 것이며, 農業勞賃, 其他勞賃, 給料, 謝禮金, 家事收入, 其他雜收入 등은 대체로 勞動所得에 속하는 項目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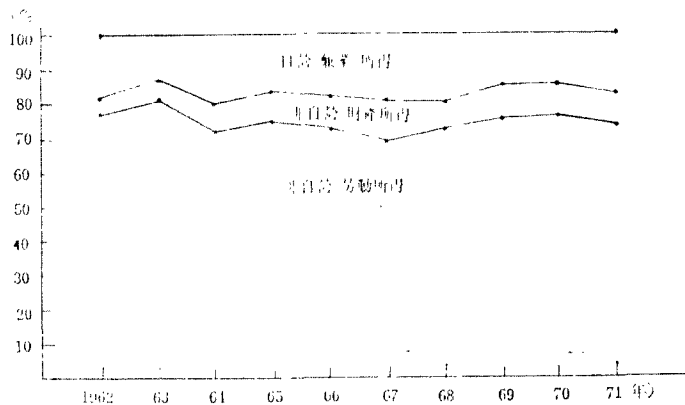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送金補助’ 및 ‘被贈’ 項目의 取扱이다. 이 두 項目은 어느 것이나 常住家口員 以外の 出他家族이나 親戚으로부터의 送金을 主內容으로 하는 點에서는 形式的으로 移轉所得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項目을 移轉所得으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判斷은 家口員의 範圍를 常住家口員에 局限하느냐 아니면 就業하고 있는 職場의 位置에 따라 在宅家口員과 居住地를 언제나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農家家計의 一翼을 規則的으로 맡고 있는 ‘出他家口員’까지를 包含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밖에도 家

(11) 渡邊兵力, 「農家の兼業化」, 『農業總合研究』, 8卷 3號, 1954, 7, pp.80-81.

族 이외의 親戚이나 親知로부터의 不規則的인 被贈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比重은 無視해도 좋을 程度일 것이다. 여기서는 出他家口員도 家計所得源泉의 一翼을 規則的으로 擔當하는 限 農家家口員의 一員으로 보아야 한다는 立場에 서서 家口員의 範圍를 廣義로 解釋하는 것이 農家所得構造를 實質的으로 解明하는 데에 有益한 觀點을 提供해 줄 수 있다고 判斷하여 出他家口員의 勞賃所得이 中心이 되는 ‘送金補助’ 및 ‘被贈’을 勞賃·給料과 함께 勞動所得을 構成하는 項目으로 看做하기로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兼業所得을 自營과 非自營으로, 非自營兼業所得을 財産所得과 勞動所得으로 다시 區分하여 構成比의 變動을 보인 것이 <第 IV 3圖>이다. 먼저 自營兼業所得은 兼業所得 중 15-20%에 지나지 않으며 80-85%의 壓倒的인 部分이 非自營兼業所得이다. 또한 兩者間의 構成比도 거의 趨勢的인 變動傾向을 보이지 않고 있어 兼業所得의 主力이 非自營兼業에 있는 것임을 明白히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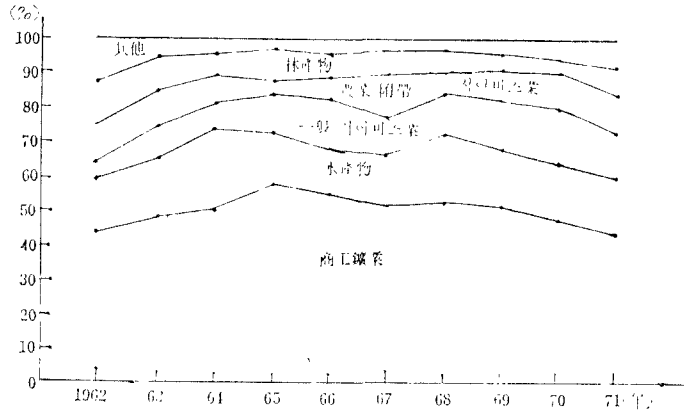
非自營兼業所得을 上述한 바 項目의 性格에 따라 勞動所得과 財産所得으로 區分하여 보면, 農地賃貸料, 其他賃貸料 및 配當利子로 構成되는 財産所得은 兼業所得全體의 10%에도 未及한 限, 非自營兼業勞動所得이 75% 内外에 이르는 絶對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第 IV-3圖> 兼業所得의 構成

다음에는 自營兼業所得의 內容과 性格을 考察해 보기로 하자. <第 IV-4圖>가 混合所得인 自營兼業의 收入을 源泉別로 나누어 본 것이다. 自營兼業收入 중 가장 比重이 높은 것은 零細小賣業을 中心으로 하는 商工鑛業의 50% 内外이며, 다음이 水産物의 15-20%, 그리고 農業附帶서비스業의 10% 内外, 林産物의 5-10% 및 一般서비스業이 平均 10% 内外의 比重을 各各 차지하고 있다. 이들 自營兼業分野의 收入構成比變動의 傾向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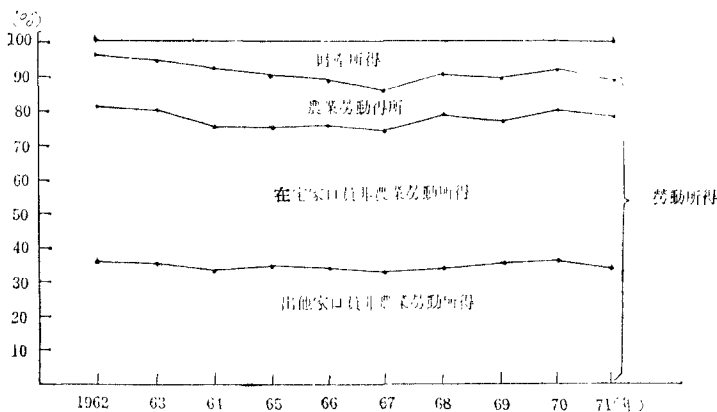
水産物, 農業附帶서비스業 및 林産物이 各各 一定한 水準에 머물고 있는 데에 비해, 商工鑛業의 65年 以來의 比重減少가 거의 一般서비스業의 比重擴大로 轉換되고 있음을 보



〈第 IV-4 圖〉 自營業業收入의 構成

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보는 商工鑛業이나 一般서비스業 등의 農家自營業業分野는 大體로 零細資本만으로 經營이 可能한 農民의 日常生活에서 不可分의 關係를 지닌 零細商工業 및 個人서비스의 提供을 內容으로 하는 것으로, 所得形成力도 매우 낮은 뿐 아니라 實質的으로는 그 大部分이 勞動所得과 다름없는 點에서 賃勞動業과 같은 性格의 範圍로 보는 것이 適當할 것이다. (12)

다음에는 非自營業業所得의 構造를 考察해보자. 〈第 IV 5 圖〉에 따르면, 非自營業業所得 중 財産所得에 속하는 項目의 合計는 1割 内外에 지나지 않을 뿐, 나머지의 90% 内外가 勞



〈第 IV-5 圖〉 非自營業所得의 構成比

動所得으로 이루어져 있다. 勞動所得의 內容을 보면 他人의 農業經營에 被傭되어 取得한 農業勞賃은 非自營兼業所得의 10-15%를 차지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외이트는 1965年 以前의 15% 内外에서 70, 71년에 와서는 10% 정도로 下落하고 있다. 農業部門의 雇傭勞動이 거의 農家에서 供給되는 점을 勘案하여 自營農家の 立場에서 본다면 最近에 있어 農業經營에 있어서의 雇傭勞動關係의 進展은 매우 不振하며 家族勞動에 대한 依存度가 한층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推論을 可能하게 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非自營兼業所得 중 非農業勞賃의 比重은 75-80% 線에서 安定되고 있어 兼業所得全體의 2/3 以上이 非農業에 雇傭되어 얻는 賃金이라는 것을 뜻한다. 非農業賃金所得을 다시 在宅家口員의 그것과 出他家口員의 그것으로 나누어 보면, 「農家經濟調查」에서의 ‘送金補助’ 및 ‘被贈’의 合計에 해당하는 出他家口員의 非農業賃金所得은 非自營兼業所得全體의 35% 内外를 점하는 상당히 安定된 位置를 지니고 있으며, 非農業賃金所得의 거의 半分に 해당하는 크기를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農家兼業所得의 大部分은 勞動所得의 性格에 속하는 것이며, 財産所得의 比重은 기껏해야 15-20% 水準을 넘지 못하는 程度라고 할 수 있다. 또 勞動所得의 大部分은 非農業勞賃이며, 非農業勞賃의 거의 半分은 出他家口員의 勞動所得이며 나머지 半分이 在宅出勤形態의 勞動所得이라는 構造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農家の 所得의 地位가 매우 낮은 水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兼業所得이 農家所得 中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비교적 낮으며 非農業勞賃所得의 거의 折半이 出他家口員에 의한 送金補助形態를 취하고 있는 것은 非農業部門의 雇傭機會가 아직도 制約되어 있을 뿐 아니라 農家の 通勤距離內의 農村工業 등의 立地가 별로 進展되지 못하고 있다는 事情을 反映하는 것이다.⁽¹²⁾

V. 結 語

여기서는 이제까지의 分析에서 밝혀진 基本的인 論點들을 整理要約하고 이들간의 關聯

(12) 自營兼業의 實態에 관해 詳細한 資料를 접하지 못하고 있으나, 日本의 경우를 보면 自營兼業의 9割에 가까운 大部分이 使用人없는 企業이라는 점에서 自營兼業도 實質적으로는 賃勞動者와 다름없다는 것이 指摘되고 있다. 長谷川誠資, 「農家人口と兼業化」, 野尻重雄編, 『農村の人口』, 1959, pp. 170-3.

(13) 다만 1963年 以來 兼業農家の 構成에 있어 2種兼業農家가 急速히 增大하는 反面 1種兼業農家數가 減少하는 등의 注目한만한 變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최근 몇몇 地域에 農家の 通勤距離內에 大規模工場群이 集中的으로 建設됨으로써 現地農家에서 常勤從業員을 採用하게 되고 이에 따라 ‘飯米自給的 兼業農家’ 類型이 登場하는 事實을 反映한다. 그러나 이 傾向은 少數의 地域에 局限된 現象으로서 2種兼業農家の 分布는 커다란 地域的 差異를

을 吟味함으로써 現段階의 韓國農業이 生産力의 發展에 있어 當面하고 있는 問題의 性格을 밝혀두고자 한다.

먼저 農家의 經濟收支는 1950年代를 통해서 매우 不安定한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平均的인 農家가 家計收支의 赤字를 벗어나고 農業所得의 家計費充足度가 90% 以上線에 定着하게 된 것은 1962年 以後의 일이다. 또 영결係數로 본 農家의 生活水準도 1963年 以來 持續的인 向上을 보여 왔다. 그러나 農家의 實質所得은 1955年 以後 그 增加가 매우 不振함으로써 70년에 와서야 1961年의 水準을 回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都市勤勞者家口의 實質所得은 1961年 以來 67년에 이르는 동안 急增을 보임으로써 農家所得의 相對的 地位는 1960年代 後半期에 있어 크게 低下되었다. 農家·非農家간의 所得格差는 70年代에 들면서 약간 縮小氣味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도 커다란 格差幅을 그대로 持續하고 있다.

한편 農業內部的 農家階層間的 所得格差는 農業成長率이 높아지면 擴大하고 農業成長率이 낮아지면 縮少하는 年次的 波動을 보이면서도 趨勢的으로는 平行線을 持續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階層間所得格差가 溫存되고 있는 事實은 下層農家가 低所得克服을 위해 進出할 수 있는 非農業部門의 就業機會가 매우 制約되어 있다는 事情을 意味한다.

農業所得에 局限해 보면, 農家의 階層別 農業所得依存度는 0.5町步以上層은 모두가 80% 以上の 매우 높은 水準에 있는 데 비해, 耕地面積 0.5町步未滿의 零細農層만은 農業所得依存度가 상당히 낮은 뿐 아니라 그 低下도 꾸준한 速度로 進展되고 있어 兼業을 통한 零細農의 脫農化가 急進展하고 있음이 特徵的이다.

農業所得率의 움직임은 1960年代를 통해서 趨勢로서는 下落傾向을 찾아 보기가 어려우며, 農產物相對價格 및 作況의 豊凶에 따라 鎔放한 年次的 波動을 보여 왔을 뿐이다. 이와 같이 短期的 要因에 의한 波動을 除外한 所得率低下傾向이 보이지 않는 事實로부터 이 期間의 農業生産은 그 生産物構成이나 投入要素의 技術構成에 있어 構造的인 變動이 크게 進展되어 오지는 못했음을 推論할 수 있다. 階層別로 본 所得率水準의 差等を 가져온 要因은 耕作規模의 差에 따라 自家勞動力不足을 위해 雇傭勞動을 投入하거나 農地를 賃借하는 데 所要되는 要素費用項目에 局限된 것일 뿐, 投入物財費의 構成에서 나타나는 經營의 技術構造面에 있어서는 階層間的 差異를 찾기가 어렵다. 결국 農家가 保有하는 耕地規模의 廣狹에도 불구하고 採用하고 있는 生産要素의 投入構成은 마찬가지로이며 階層間 技術水

同件하면서 擡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鄭英一, 「韓國農業의 構造變動」, アジア經濟研究所 調査研究部, 1973, pp.71-2.

準의 格差가 거의 없다는 事實이 確認된다.

農業經營에 投入되는 費用構成에 있어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肥料費이며, 이에 반해 農具費의 比重은 매우 낮은 水準에 있을 뿐 아니라 趨勢의으로도 擴大傾向을 찾아 보기가 어렵다. 1962年以來 物財費 가운데 가장 急速히 擴大되어 온 것은 農藥費支出이다. 肥料費의 壓倒的 比重과 아울러 農藥費의 急增趨勢는 現段階에 있어 農業技術의 發展 類型이 極端的인 生·化學的 技術의 線 위에서 追求되고 있으며, 農業機械化의 進展은 매우 不振하고 있는 事實을 端的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近年의 農藥投入의 急增이라는 現象은 특히 1967年의 以來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農繁期의 勞動力不足과 이에 따른 農業勞賃의 急騰에 대한 農家の 對應이 除草劑를 中心한 農藥의 增投에 의한 部分的인 勞動力節減을 위한 機械化의 方向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段階임을 보여 준다.

近年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農繁期의 農業勞動力不足現象은 1961, 5年頃부터 急進 展하고 있는 農家の 所得의 地位의 相對的 惡化와 青年·男子農業就業者의 大量離農⁽¹⁴⁾에 뒤따른 農業側의 生産要素投入構造의 再編成이라는 對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오는 結果인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한편 農家兼業은 零細農層의 家計補充型兼業形態가 主流를 이루고 있어, 兼業所得의 壓倒的 部分이 非自營兼業, 그중에서도 非農業賃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非農業賃金の 折半 가까운 額이 出他家口員의 勞賃所得인 것으로 보아, 農家通勤圈內의 非農業就業機會는 一部地域을 除外하고는 全般的으로 매우 制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考察을 통해서 볼 때, 1960年代에 들어 非農業部門을 中心으로 持續되어 온 高度成長은 農家の 所得의 地位의 低下와 아울러 多少나마 非農業部門의 就業機會를 擴大 시킴으로써 零細農層의 兼業化와 脫農化를 促進시키는 한편 青年·男子層農業就業者를 急速히 流出시킨 面에서 가장 큰 影響을 波及하였다. 이것은 農業部門內部에 대해 農繁期의 勞動力不足과 農業勞賃의 急騰을 통해 農業經營의 條件에 새로운 試練을 안겨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條件變動에 대한 農業經營側의 對應은 아직도 새로운 條件下에서의 生産力의 維持·發展을 可能케 할 수 있는 段階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1960年代 後半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農業經營이 直面한 試練은 아직도 그 端初期에 지나지 않는 것일 뿐 70年代를 통해 經營條件의 變動에 對應한 農業生産力의 維持·發展은 한층 全面的이며 持續的인 課題로 擡頭된 것으로 展望된다.

(14) 鄭英一, 「前掲稿」, アジア經濟研究所, pp.73-78.